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 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 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 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 마리루시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2월 18일 '재의 수요일'(한국어 미사)**  
**장소:** Lower Church **시간:** 오후 6시 45분  
 \* 미사 중 재를 엮는 예식이 있습니다. 또한 이날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세금보고 서류 신청 안내**  
 세금보고를 위해 '2025년 교무금 및 감사헌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서류 신청을 받습니다.  
 ※ 서류 발급은 **지정된 기간에 일괄** 처리됩니다.  
**신청 기간:** 2월 15일(주일) ~ 3월 1일(주일)  
**신청 방법:** 미사 후 재무 테이블 방문 신청 또는 재정분과 이메일 접수: stfranciskctr.org@gmail.com  
 ※ 서류 신청 시 **영문 성명 / 주소 / 연락처** 필요 ※  
**서류발급 기간:** 3월 8일(주일) - 3월 15일(주일)

**2026년 견진성사반 안내**  
**대상:** 세례성사를 받은 성인  
 (\*타 성당 교적 신자의 경우 세례증명서 제출 필수)  
**교육기간:** 2/22-3/29  
**장소/시간:** 프란시스코, 1:00 PM ~  
**신청:** 646-832-7397 (Sr. 마리루시)

**2026 전 신자 SNS 성경공동통독(요한/사도행전)**  
 2025년 대림시기 <공관복음(마르코, 마태오, 루카)> 통독에 이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공동통독을 시작합니다. 주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영적 준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대상:** 2/8-3/28, 전 신자  
**방법:** 각자 매일 1장씩 정해진 분량 읽기, 언제든지 참여 가능(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진도가 나간 분량을 개인적으로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참여방법:** 1. QR 스캔 또는 <https://open.kakao.com/o/g2b2QQUh>  
 2. 코드 10001 입력

**문의:** 646-832-7397 (Sr. 마리루시)

**2026년 봄학기 청년성서모임 그룹원 모집**  
 2026년 봄학기 청년성서모임과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대상:** 가톨릭에서 세례 받은 청년  
**모집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신청마감:** 2/22(주일) 11:59 PM  
**첫 모임:** 3/8(주일) 12:00 PM, 산 다미아노홀  
**모임시간:** 주일반, 평일반  
 (그룹원들끼리 요일/ 시간/ 장소 합의)  
**문의 :** 714-809-9874  
 (대표봉사자 유선욱 베로니카, 카카오톡 ID: sunwouk)

**미 동북부 제 68차 기초성령세미나**  
**일시:** 2/19(목) 5:00PM ~ 2/22(주일) 5:00PM  
**장소:** 뉴튼 수도원, 297 US-206, Newton, NJ, 07860  
**참가비:** \$390(식사 및 숙박 포함), **교재비:** \$15  
**신청마감:** 2/15(주일)  
**신청:** 917-929-4242 (성령기도회장 민재인 데레사)

**2026 미 동북부 ME: Family Bowling**

**일시:** 3/1(주일) 2:30PM  
**장소:** Bowler City  
 (201-343-3545)  
 85 Midtown Bridge Approach,  
 Hackensack, NJ  
**참가비:** \$50 부부  
 (18세 미만 자녀 무료)

**신청:** 646-322-3484  
 (장혜윤 크리스티나)  
 \* 행사 후 간단한 식사제공



###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 ✿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 124위 복자 :복자 한정흠 스타니슬라오(1756-1801)



한정흠은 전라도 김제의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훗날 전주에 살던 먼 친척 유항겸 아우구스티노의 집에 가 그 자녀들의 스승이 되었는데, 이때 유 아우구스티노 덕분에 천주교를 알게 되었다. 천주교 신앙을 받아 아들인 후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제사를 지내지 않고,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전주를 방문했을

땐 성사를 받기도 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 한정흠은 그해 3월 유 아우구스티노와 함께 체포되어 전주 감영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여러 차례 혹독한 형벌을 받던 중,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잡혀 온 김천애 안드레아와 최여겸 마티아를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한양으로 함께 압송되어 계속 문초를 겪었고, 마침내 8월 21일 사형선고를 받았다. 형조는 사형을 선고하면서 이들을 각각 고향으로 보내 처형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래서 한정흠은 고향인 김제로 이송되었고 며칠 뒤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으니, 때는 1801년 8월 26일, 그의 나이 45세였다.

한정흠에게 내린 사형 선고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정흠은 제사를 폐지하였으며, 천당으로 일찍 가지 못한 것을 오히려 한탄하였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70, 가해, 2026. 02. 08

###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I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r@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김문희 아우구스티노 신부 |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장



오늘의 제1독서 집회서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충실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아시는 하느님 앞에서,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는 선택과 책임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게 된다는 말씀은, 결국 충실한 신앙인의 삶에 관한 우리 자신의 책임감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은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우두머리들은 알 수 없는,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는 지혜입니다. 참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만남으로, 우리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마태 5,17) 5장의 행복 선언에 이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당신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이는 율법이 우리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에 관한 충실성을 외적으로만 잘 지키게 하는 것이 율법의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 내재해 있는 깊은 의미들을 헤아리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과 함께 지혜 안에서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혜 안에서 율법의 바탕에 존재하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율법이 참행복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여기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리게 되고,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완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율법의 참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않고 부족하며,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혜에서 멀어집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 시기를 맞이 하게 됩니다. 머리에 재를 얹고 사제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우리가 가야 할 참 행복의 길을 위해 성령께 지혜를 청하며,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회개의 사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림 해설

철부지에게서 | 버려야 할 것을 알기 위해, 아이에게 조아립니다. 가르침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순수를 밀쳐냈는지를 생각하면, 두꺼운 세월이 부끄러움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어찌해야 할지... 선악과도 따야 했던 지식과잉, 병이 되도록 넘쳐난 영양 과잉, 탐낼수록 목마른 소유욕에 중독된 채로, 머지 않아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글 · 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 출처: <서울주보>, 제2600호, 2026년 2월 15일(가혜)



바오로말큰텐츠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저희가 모르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뉘수치며 살고자 하오니, 갑자기 죽음을 맞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소서.”

\* 출처: <매일미사> 2월 18일 중